

연료 공동구매로 생산비 절감에 나선다



아산채란지부가 지난 4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이일용 지부장과 강용식 본회 육계분과위원장이 나란히-간판 오른쪽)

대한양계협회아산육계지부(지부장 이일용)가 지난 11월 4일 아산시 모종동 소재 지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아산시 강희복 시장을 비롯, 본회 강용식 부회장(육계분과위원장), 맹준재 아산시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아산육계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기인 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10월 11일에는 창립총회를 거쳐 지역 육계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산시 지역에서는 총 40여 농가에서 200여만수의 육계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25명의 양계인들이 회원에 참여하고 있다.

지부설립에 회원들 적극 나서

그 동안 아산지역은 양돈, 낙농·육우 등 타 축종의 모임체가 일찍부터 활성화되어 왔지만 육계 산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를 기하기 힘들었다. 일부 육계인들간의 사적인 모임은 있었으나 육계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달 대한양계협회 아산시지부를 발족하면서 회원들과의 교류와 정보교환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지부가 탄생하기까지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회원들은 심시일반 지부설립을 위한 활동자금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하였고, 사무실까지 구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지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료 공동구매로 생산비 절감

아산육계지부는 회원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싼가격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거 개인이 연료를 사용할 때 보다 리터당 50원 썩 싸게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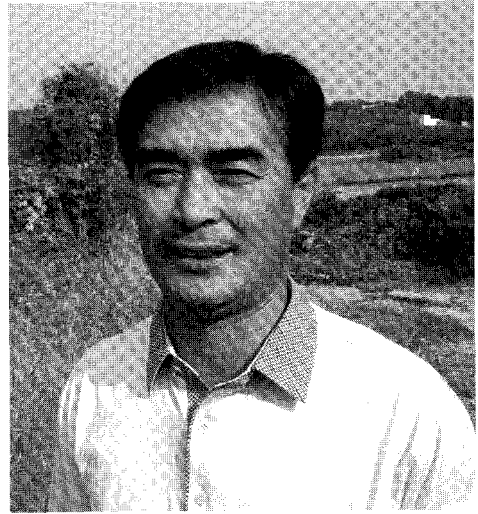
이는 2~3만수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한겨울에는 한 회전당 1만리터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한 회전당 50만원까지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아산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미생물제제를 개인적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이제는 지부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부의 설립을 통해 앞으로 백신과 소독약 등을 일괄 협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와 이미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며, 방역활동도 시와 축협이 협조로 방역차를 지원받아 주기적으로 방

역을 실시하면서 집단 방역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부를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강희복 아산시장이 현판식에 직접 참여해 지부설립을 축하해 주었다.



최고의 지부를 꿈꾸는 이일용 지부장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부 만들테

지부장은 전국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활성화된 지부를 만들어 육계산업의 발전을 꾀해 나갈 포부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들의 권익이라고 강조하는 이일용 지부장은 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방역은 물론 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 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살림을 맡고 있는 김찬우 총무는 회원들의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살림살이를 완벽히 해 나가면서 회원들로부터의 신임을 얻고 있다.

이일용 지부장은 지난 10월 29일 아산시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 육계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산지부의 저력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이 자리에서는 질병문제, 수입닭고기 저지, 계열사와 계약농가의 현실적인 계약체제유지 등 육계업의 당면현안 등이 다루어져 앞으로의 육계업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데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정리 | 김동진 팀장 dj@poultry.or.kr) **양계**